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二月河의 《康熙大帝》 연구

- 康熙人物形象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李玲茜

2014 年 2月

二月河의 《康熙大帝》 연구

－ 康熙人物形象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趙 洪 善

李 玲 茜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 年 2月

李玲茜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4年 2月

목 차

I. 서론	1
一. 연구 현황	1
二. 연구목적	3
II. 《康熙大帝》 개괄	5
一. 작가 소개	5
二. 배경 소개	7
1. 창작 동기	7
2. 시대적 배경	9
3. 문학적 배경	10
三. 내용 소개	11
III. 人物形象 분석	14
一. 正史의 康熙	15
二. 小說의 康熙	19
1. 性格 形成의 배경	19
(1) 皇帝 신분이 속박한 인간 본연의 천성	20
(2) 皇帝 신분이 가져온 고독	2

2. 康熙의 성격	30
(1) 긍정적 성격	9
① 인자함과 아량	30
② 인재에 대한 혜안	34
③ 지략	36
④ 인내심	37
(2) 부정적 성격	9
① 시기, 교활	39
② 질투	41
3. 비교 결과 - 康熙에 대한 미화	4
 IV. 결 론	 44
 참고문헌	 46

I. 서론

一. 연구 현황

1980년대 중국 사회는 개혁개방으로 인한 변혁과 문화적 전환기에 있었다. “명청 교체기의 첨예한 사회적 갈등과 문화 충돌은 이 시기 중국의 사회적 문화적 격변과 여러 가지로 유사하다. 전환기 사회가 사람들을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몰아넣을 때, 역사소설가는 역사를 깊이 거슬러 올라가 그 안에서 귀감이 될 만한 점을 찾고 중화문명의 정신적 근원을 발견해낸다. 따라서 격변하는 역사는 전환기를 살아가는 작가들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음과 동시에 역사의 거울에 현재를 비춰볼 수 있는 중요한 소재를 제공한다.”¹⁾ 이에 많은 작가들은 청조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청조를 소재로 소설을 집필하기에 이르렀다. 二月河의 “落霞三部曲”(《康熙大帝》《雍正皇帝》《乾隆皇帝》)은 이 시기 청대 역사를 소재로 한 소설 중 뛰어난 작품으로 꼽힌다.

二月河의 역사소설은 초기에 전문가들로부터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줄곧 높은 판매부수를 유지했고, 더욱이 드라마로 제작된 후에는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2000년 이후에야 이 작품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국우수석사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CNKI)를 검색한 결과, 2001년부터 지금까지 二月河와 주요 작품을 대상으로 한 석사학위논문은 총 14편, 학술기간논문(二月河 인터뷰 및 전기 제외)은 40편에 달했다.

검색한 논문을 시기별로 분류한 표는 아래와 같다.

年度	01年	02年	03年	04年	05年	06年	07年	08年	09年	10年	11年	12年
篇数	2篇	1篇	8篇	13篇	7篇	7篇	6篇	3篇	2篇	3篇	1篇	1篇

1) 方婉先, <帝王歷史의 兩種經典書寫——凌力“百年輝煌”系列과 二月河“落霞”系列比較>, 14쪽.

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듯이 이월하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었다. 연구는 2001년과 2002년에는 비교적 저조하다가 2003년에서 2007년에 이르는 기간에 와서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고, 특히 2004년에는 최고조에 달했다. 2008년부터는 그 열기가 다소 주춤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二月河를 연구한 수많은 이들 중 河南 南陽의 연구팀을 주목해 볼 만하다. 劉克, 張書桓, 張德禮를 대표로 하는 이들은 河南師範學院 소속으로, 남양이 二月河가 체류했던 지역이라는 문화적 강점에 기대어 二月河 및 그 역사소설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의 논문은 상당한 문화적 깊이를 지닐 뿐 아니라 작품의 여러 차원을 골고루 다루었다. 劉克 한 사람만 하더라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여러 학술 간행물에 발표한 관련 논문이 14편이나 된다. 이들은 또 이월하를 연구한 전문 서적인 《二月河歷史敘事의文化審美建構》를 공동 출판했다. 이 책은 작가와 작품의 관계, 소설에 내재된 문화적 함의, 작품과 사회 등 세 부분에 걸쳐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주로 지역문화의 각도에서 작가와 작품의 함의를 해석한다”는 대목은 二月河의 역사소설과 남양 문화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남양의 연구팀을 제외하더라도 二月河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매우 폭넓고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40편의 기간논문을 주제에 따라 분류한 결과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1. 인물 묘사 총 8편
2. 지역 문화와 생활 경험이 二月河의 소설 창작에 미친 영향 총 4편
3. 사상문화의 내포 총 5편
4. 서술 기법 총 5편
5. 심미적 풍격 총 6편
6. 세속문화, 민간문화의 영향 총 6편
7. 다른 역사소설작가와의 비교 총 3편
8. 기타 총 3편

二. 연구목적

二月河의 청 황제 소설 시리즈에 대한 연구 논문은 편수도 많고 다루는 내용도 매우 광범위하다. 그 중에는 명확한 관점을 제시한 논문, 심도 있는 분석을 한 논문, 독특한 시각을 제시한 논문, 편파적 관점을 취한 논문 등이 다양하게 있었다.

필자가 읽은 14편의 석사 논문들은 폭넓은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이들 논문은 모두 “落霞三部曲” 시리즈의 3부 소설을 연구했는데, 연구 영역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연구 주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다. 王文霞의 논문 <二月河歷史小說의當代價値>만 보더라도 1부 역사소설의 문체적 특수성 분석, 2부 인물 분석, 3부 소설 주제 분석, 4부 서술 방식 분석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다른 논문들도 한결같이 이런 특징이 발견되었다. 그밖에 40편의 기간논문 중 인물 묘사에 관한 논문이 총 8편이 있고, 이 8편 중에 大臣과 문인에 대해 인물 분석을 시도한 것은 많지만, 황제의 인물 분석에 관한 내용은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王文霞의 <家國視野下的艱難“承擔”——二月河歷史小說中知識分子形象>, 田小楓의 <千古文人名士夢——論二月河小說的名士情懷>, 林虹의 <鮮活, 豐滿, 別致——二月河筆下的文人學士形象>은 문인 이미지를 분석했고, 蔡賢富의 <“道貌兩分”——略談二月河“帝王系列”對能吏의肖像描寫>는 관리 대신 이미지를 분석했다. 張磊의 <二月河筆下傳奇人物形象의深層次內涵>는 관리 대신과 문인 이미지를 분석했다. 14편의 석사 논문 가운데 戴璿의 <論二月河帝王系列小說>과 王文霞의 <二月河歷史小說의當代價値> 두 편만이 황제에 대한 인물 분석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두 편 모두 강희, 옹정, 건륭 세 황제를 주로 분석한 것으로, 각 황제의 인물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는 지면을 많이 할애하지 않았다.

二月河의 “落霞三部曲”에 대해 학계는 엇갈린 평가를 보인다. 학계의 쟁점은 주로 “落霞三部曲”의 사상과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落霞三部曲”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학자들은 “落霞三部曲”이 봉건사회와 봉건황제를 칭송한다고 보았다. 王增範은 <二月河清帝系列小說의缺陷>에서 “작가는 정치에 힘쓰고 백성을 아끼는 봉건황제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봉

건왕조의 본질을 애써 외면했다……고의적으로 역사의 옳고 그름, 작품의 정치적 입장과 문화적 입장의 경계를 흐려 놓고, 황권 문화관념을 전파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二月河의“落霞三部曲”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落霞三部曲”이 봉건제도를 비판했다고 말한다. 張德禮는 《二月河歷史敘事의文化審美建構》에서“二月河는 ‘청 황제 시리즈’를 통해 봉건문화 가운데 가장 냉정하고 잔인한 현실을 의식적으로 표현해냈다”고 평가했다. 본 논문은 소설 《康熙大帝》에 등장하는 강희제라는 인물을 분석하고 소설 속 강희제가 실존 인물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성격과 내면세계를 지니는지를 연구한다. 또한 강희제에 대한 인물 분석을 통해 소설 《康熙大帝》가 봉건제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연구하고 《康熙大帝》, 나아가 “落霞三部曲”의 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상의 연구를 중심으로 필자는 “落霞三部曲” 중 한 작품을 통해 황제에 대한 인물 분석을 시도하려는 구상을 시작했다. 《康熙大帝》이 작가 이월하에게 효시가 된 작품이자 그의 이름을 문단에 알린 작품이므로 필자는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을 《康熙大帝》으로 확정했다. 논문에서는 《康熙大帝》에 등장하는 강희제라는 인물을 분석함으로써 작가가 표현하려는 주제를 밝히고자 한다.

II. 《康熙大帝》 개괄

一. 작가 소개

二月河는 중국의 유명한 역사소설가로 중국작가협회 회원이다. 한족이며 1945년 山西省 昔陽縣에서 태어났다. 유년시절 부모를 따라 河南省 南陽으로 이주한 뒤 현재까지 남양에 거주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입대하여 직업군인으로 생활하다 1978년 南陽市委員會로 자리를 옮겼으며 현재는 河南省作家協會 副主席이다. 중국 《紅樓夢》學會 河南 理事이자 南陽市文聯 主席이기도 하다.

二月河의 본명은 凌解放으로 그가 출생한 해는 중국 인민들이 8년간의 항전 끝에 일본제국주의를 타파하고 나라 전체가 승리와 해방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던 때였다. 그의 부친 凌尔文은 그에게 선명한 시대적 표식이 새겨진 “凌解放”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二月河라는 필명은 그가 만 40세 되던 해에 《康熙大帝》 제1권 <奪宮初政>을 정식으로 출판하면서 본인이 지은 이름이다. 二月河는 凌者는 얼음[冰凌]이고, 解放者는 봄을 열고 얼음을 녹인다고 생각했다. 얼음이 녹는 것은 마치 2월의 黃河가 녹는 광경과 흡사하다. 또한 黃河는 중화민족의 어머니 강이다. 부모의 직업 때문에 두 살이 되던 해 그는 부모를 따라 山西를 떠나 줄곧 황하 주변에 머물며 비적을 토벌하고 유격전을 벌였다. 어릴 적부터 황하에 대한 감정이 남달랐던 그는 스스로를 “黃河의 아들”이라 칭했다. 필명을 “二月河”라고 지은 것도 근본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다.

현대 문단에서 二月河는 과연 다크호스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40세 이전까지는 발표한 소설 작품이 없었다. 창작 경력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군에 재직했을 당시에 썼던 신문기사 정도였다. 어린 시절에는 그다지 특출한 재능을 보이지 않았으며 성적도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던 二月河는 고등학생 때 문학에 깊은 흥미를 느껴 틈틈이 《紅樓夢》, 《三國演義》, 《水滸傳》, 《톰소여의 모험》 등 국내외의 여러 소설 작품들을

읽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문학에 뜻을 품기 시작한 그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여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꿈은 문화대혁명의 불길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1968년 23세가 된 二月河는 군에 입대하여 10여 년간의 군 생활로 접어들었다. 1978년 제대 후 그는 南陽市 臥龍區 선전부에서 간사, 과장 등으로 재직하였다.

생업에 종사한 지 수년이 흘렀지만 문학에 대한 그의 열정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문학의 이상을 간직한 그는 특히 《紅樓夢》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그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투고를 하더라도 회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는 급기야 저명한 紅學者인 馮其庸을 찾아갔고, 馮其庸의 해안 덕분에 《紅樓夢學刊》에 자신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馮其庸은 二月河에게 1982년 10월 上海에서 열리는 중국홍학회 제2차 전국 《紅樓夢》 심포지움에 참가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 심포지움은 二月河가 장편역사소설을 발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 자리에서 한 학자는 강희가 재위한 61년 동안 시문과 음악에 정통하고 치국의 공이 크지만 그를 표현한 문학작품이 하나도 없다고 개탄했다. 37세 늦깎이로 문단에 합류한 二月河는 이 말에 크게 자극을 받고 험난한 창작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2년여 동안 여러 차례 강희를 연구한 끝에 그는 《康熙大帝》 집필에 착수했다. 스스로의 부지런함과 창조 역사에 대한 해박함으로 그는 150만 자에 달하는 《康熙大帝》 네 권을 완성하여 하루아침에 유명 작가 반열에 올라섰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강희 재위 기간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총망라한 이 한 편의 대작은 출판되자마자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어서 《雍正皇帝》와 《乾隆皇帝》를 단숨에 써낸 二月河는 이로써 “落霞三部曲” 세 작품을 완성하였다. “落霞三部曲”은 《康熙大帝》부터 《雍正皇帝》, 《乾隆皇帝》에 이르기까지 총 12권으로 구성되며, 글자수는 장장 520만 자에 달한다. 출판사들은 앞다투어 높은 가격에 판권을 사들였고, 작품은 순식간에 유명해졌다. 《康熙大帝》는 열 차례 이상 再版되었고, 1994년 동명의 TV드라마로 제작되어 중국 CCTV에서 방영되었다. 뒤이은 《雍正皇帝》도 십 수 차례 再版되었다. 二月河의 “황제 시리즈” 총서는 타이완에서도 많은 독자층을 확보했다. 세 작품 모두 해마다 再版되어 타이완 바빌론 출판사의 “효자” 작품이

되었다. 작가와 작품 모두 여러 상을 휩쓸었는데, 二月河는 河南省 정부 최초의 문학상, “八五”기간(제8차5개년계획 기간) 전국 우수장편소설상, 전국우수베스트셀러상, 미국 중국도서음반제품전시회해외인기 중국장가상 등을 차례로 수상했다. 2003년에는 “姚雪垠장편역사소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 중 《雍正皇帝》는 20세기 100대 중문소설 100위에 선정되었다. 1999년에는 《雍正皇帝》를 각색한 드라마 《雍正王朝》가 중국 CCTV에서 방영되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매일 저녁마다 TV 앞에 모인 시청자들은 옹정제의 문화적 기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二月河”라는 특이한 이름은 중국 대륙을 뛰어넘어 전세계로 알려졌다. 중국인들 중에 二月河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二. 배경 소개

1. 창작 동기

二月河의 최초의 꿈은 관리가 되는 것이었다. 二月河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벼슬길에 올라 ‘一代名臣’이 되는 게 꿈이었다.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 되어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세계는 막혀 있어서 발로 뛰기보다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일이 전부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남의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²⁾ 마음에 큰 뜻을 품었던 二月河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1966년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문화대혁명”에 뛰어들면서 대학 진학의 꿈을 접었다. 二月河는 그 후 1968년 입대하여 10년의 군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군대에 들어갔을 때 그는 가슴에 장군이 되려는 강렬한 이상을 품고 있었다. 二月河는 ‘젊었을 때는 내가 작가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40세까지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원래는 장군이 되고 싶어서 젊었을 때 병법을 연구한 적도 있었다. 만약 소원이 있었다면 장군이

2) 二月河, 《二月河作品自选集》, 鄭州河南文藝出版社, 242쪽.

되기를 내 스스로가 더욱 소망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二月河는 군대에서 공병으로 지내다가 나중에는 통신병, 그 이후에는 선전간사가 되었다. 모두 二月河가 그리던 장군의 길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마디로 二月河의 ‘장군의 꿈’은 현실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³⁾ 깨어진 “장군의 꿈”은 二月河에게 일종의 “결함적 체험”을 선사했다. “결함적 체험이란 생활 속에서 정신적 혹은 물질적이 면에서 모종의 결함을 경험한 후 형성된 일종의 심리적인 불균형 상태를 말한다. 결함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작가가 문학 창작을 통해 심리적 결함을 채우려는 심리적 동기가 될 수 있다. 인문주의 심리학자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피라미드 형식의 7단계로 나누었다. 즉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그것이다.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로부터 시작하여 상위 욕구의 실현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따라서 결함은 곧 필연이다”⁴⁾ 이러한 욕구 불만은 작가에게 결함적 체험으로 작용하여 작가의 문학 창작 동기를 형성한다. 《紅樓夢》의 작가 曹雪芹의 경우, 만약 자신의 집안이 기울지 않았더라면, 그는 몰락한 가문을 소재로 한 “紅樓夢賈府”를 쓰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紅樓夢》과 같은 위대한 작품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二月河의 “장군의 꿈”이 사라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낙하삼부 곡”을 만날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앞서 말했듯이 二月河가 처음부터 소설가는 아니었으며 심지어는 《康熙大帝》을 쓰기 전에는 문단에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이전부터 홍학 연구에 몰두하느라 40세가 되어서야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上海에서 열린 제2차 《紅樓夢》 심포지움에서 문학계에 청대 황제들을 소재로 한 작품이 없다던 한 학자의 한탄은 二月河를 자극해 그가 《康熙大帝》를 쓰도록 만들었다. 누군가 무심코 내뱉은 말을 흘려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긴 경우다. 학자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은 二月河는 곧바로 《康熙大帝》 집필에 착수함으로써 문학창작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작가의 심리적 결함과 《紅樓夢》에 대한 애착이

3) 黃先勇, <論二月河生活經歷對其創作的影響>, 《黃河科技大學學報》, 2011年第01期, 3쪽.

4) 張德禮, 殷小紅, <缺失體驗：二月河創作心理動因探究>, 《南都學壇》, 2004年第05期, 2쪽.

二月河가 청 황제 시리즈 소설 창작의 동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2. 시대적 배경

二月河가 《康熙大帝》를 집필하던 시기는 바로 중국사회의 개혁기였다. 1976년 10월 “4인방”의 몰락과 1978년 2월 중국공산당 11차 3중전회의 개최는 중국 현대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다. 3중대회 개최를 계기로 일어난 사상해방운동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영역에서 구현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1984년 12월에 열린 중국작가협회 제4차 회원대표대회에서는 “창작의 자유”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문학에 대한 정치의 통제가 느슨해지자, 작가들의 작품 창작은 더욱 자유롭고 다양해졌다. 따라서 당시의 역사소설이 보여주는 “역사”에 대한 이해와 표현에도 매우 큰 변화가 생겨났다. 과거 단순히 농민 봉기만을 담아 내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정치적 차원에서 문화적 차원으로 영역을 넓혀 나갔다. 단순한 사실의 기술에서 더 나아가 작가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에 담겨진 풍부한 문화적 의의를 표현해 내기 시작한 것이다. 二月河 역시 “내게 창작에 대한 개념이 진정 싹트기 시작한 것은 역시 11차 3중대회 이후다. 이 회의에 대한 미래의 평가가 어떻게든 간에 사상해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제창은 분명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종의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까지 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 이것들을 정리하고 취합해서 어떻게든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회상했다. 자신이 읽었던 수 많은 책들이 작품 속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二月河의 소설은 대중의 시선을 끌 수 있었다.

이 시기는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경제변혁 역시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게다가 개혁개방은 외래문화의 영향을 계속 확대시켰고, 당시 중국 사회와 중국인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에 놓이게 되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고, 사회는 활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정신은 추락하고 도덕은 자취를 감춰 버린 상황에서 전통적이고 긍정적 의미를 지닌 정신적 재산 역시 거기에 과묵히고 말았다. 그

까닭에 양식 있는 지식인들은 정신적 가치의 재구성을 일종의 자각적 선택이자 신성한 사명으로 삼았다. 청조가 명조를 전복시키고 山海關을 통과해 중원으로 들어갔을 무렵은 청조에게도 나라가 교체되는 혼란기였다. 그러나 청 통치자가 초기에 일으킨 일련의 개혁은 당시 사회 면모를 크게 바꾸어 개혁 이후 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二月河가 제왕을 소재로 한 소설 시리즈는 세상에 대한 작가의 강한 애정이 반영된 것으로, 작가가 (세상에 대해) 그러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문학적 배경

80년대 초 서양 모더니즘 문학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뒤 점차 주요 화제로 부상하여 중국 문단에서 커다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8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자 현대 중국은 사회, 경제, 문화 관념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사람들은 서양 모더니즘 문학의 총체적 관념과 중국의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문단에는 “문화의 뿌리 찾기”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작가들은 전통 의식과 민족 심리 문화의 발굴에 힘을 기울이며 문화적 측면에서, 특히 전통 문화를 돌이켜 보면서 중국의 발전을 위한 활력과 출구를 모색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학 사조를 “尋根文學”이라고 한다. 작가 韓少功은 <文學의 “根”> 에서 “문학은 뿌리가 있으며 문학의 뿌리는 민족 전통의 문화 토양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잎이 무성해질 수 없다.” 라고 했다. 그는 문학의 뿌리 찾기가 민족에 대한 재인식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사조의 영향으로 1988년 문학계에는 “문학사를 다시 쓰자!” 라는 구호가 있었다. 그 후 “다시 쓰기”, “재평가” 등의 문학 현상 및 작가와 작품의 문장들이 대거 출현했다. 이런 작품들은 모두 문학사 저술의 심미적 사유를 강조하고, 문학사 학과의 독립성과 과학성을 강조하였다. 문학사를 다시 쓰자는 구호는 80년대 후반 중국의 완화된 이데올로기 환경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二月河가 쓴 청 황제 소설 시리즈는 “尋根文學” 류에 속하지는 않지만 “尋根文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명청 교체기라는 특수한

시기에 초점을 맞춰 역사의 화면을 하나하나 생생히 펼쳐 보이고, 역사에 대한 깊은 반성과 전통 문화에 대한 심도있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사회적 사고와 민족 정신 이념을 제공하는 한편, 전통 역사 소설의 한계를 뛰어 넘어 현대적 관점에서 그 시기의 역사를 재평가했다. 그의 제왕 소설 시리즈는 특정 역사 시기에 뿌리를 두고 현실 사회의 사상 심리를 담아내고 있다. 그는 애국심과 중국 문화 전통을 드높이려는 자각적 의식을 작품에 쏟아 부었고, 당시 예술계와 문화계에 부는 “문화열풍”에 객관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중국 전통 문화라는 옥토에 자신이 쓴 역사 소설의 뿌리를 단단히 심어 놓았다.

三. 내용 소개

《康熙大帝》는 <奪宮初政>, <驚風密雨>, <玉宇呈祥>, <亂起蕭牆> 네 권으로 구성된다. 제1권 <奪宮初政>은 50章, 제2권 <驚風密雨>는 45章, 제3권 <玉宇呈祥>은 54章, 제4권 <亂起蕭牆>은 56章으로 되어 있다. 글자 수가 150여 만 자에 달하는 네 권의 작품은 康熙 皇帝가 유년기에 황위에 등극하면서부터 서거할 때까지 재위 61년 동안의 사건과 치적들을 소개하고, 皇帝의 찬란한 일생을 그리고 있다.

제1권 <奪宮初政>에는 康熙 皇帝가 鰲拜를 체포하고 조정의 대권을 되찾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8세에 즉위한 康熙 皇帝는 先帝의 유언에 따라 索尼, 蘇克薩哈, 遏必隆, 鰲拜 네 신하의 보좌를 받았다. 그 중 뽀뽀이가 오만 방자한 鰲拜는 노신 索尼가 병사하자 遏必隆과 결탁하고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은 蘇克薩哈은 사형시키는 한편, 조정을 손에 쥐고 흔들며 康熙 皇帝를 자신의 뜻에 굴복시켰다. 그는 結黨하여 사리를 추구하고, 보수 세력을 끌어들이며 군주를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할 음모를 꾸몄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조숙했던 康熙 皇帝는 과거에 낙방했다가 합격한 江南의 才子 伍次友를 비밀리에 스승으로 모셔다가 역대 황제의 치국 사례를 열심히 공부했다. 또한 무공 훈련을 구실 삼아 자신의 근위병인 魏東亭을 주축으로 십여 명의 젊은 병사들을 선별하여 훈련했다. 康熙 皇帝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鰲拜를 체포함으로써 신변의 최대 위협을 제거하고 순조롭게 친정을 펼쳐 나갔다.

제2권 <驚風密雨>에서는 康熙 皇帝가 三藩을 평정하고 反淸復明을 피하는 鍾三郎 香堂會를 숙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鰲拜 세력을 제거한 후 정권을 장악한 젊은 康熙 皇帝의 눈 앞에는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吳三桂가 이끄는 삼변은 사병을 보유하고 세력을 키워 모반을 꾀했다. 反淸復明을 표방하는 鍾三郎 香堂會는 그 무리가 수백만에 달한다. 서로 조직적으로 연결된 이들은 수십 명의 太監과 내통하여 햇불을 신호로 일제히 들고 일어나 청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몄다. 康熙 皇帝는 이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차례 위협을 무릅쓰고 평복차림으로 궁 밖을 나가 민심을 살피고 탐관을 처벌했다. 또한 혜안과 융통성을 발휘해 周培公 등의 우수한 인재를 등용했다. 민심을 뒤흔드는 수 차례의 동란 끝에 康熙 皇帝는 결국 반청세력을 일소하고 정권을 공고히 하는 데 성공했다.

제3권 <玉宇呈祥>은 康熙 皇帝의 治國安民과 중국을 통일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삼변의 난을 평정하고 난 후 康熙 皇帝는 치수를 할 만한 유능한 인재를 사방으로 물색했다. 또한 자신이 직접 汴梁에 가서 황하를 둘러보고 신하들에게 漕運을 준설하도록 시켜 황하의 물을 푸른 빛으로 바꾸어 놓았다. 우수한 장군을 기용해 수병을 훈련시킨 후 타이완을 수복하는 한편 博學鴻儒科를 개설하고 우수한 신하들을 선발하여 민족 간 갈등을 완화시켰다. 남으로는 金陵을 순행하여 명 태조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명의 遺臣들을 포섭하는 한편 북으로는 盛京을 순행하여 東몽고의 제왕들과 동맹을 맺고 나아가 서쪽으로 葛尔丹을 정복함으로써 중화 통일의 대업을 완성했다.

제4권 <亂起蕭牆>은 康熙 皇帝 만년 후계자 선정을 둘러싼 황자들의 암투를 그렸다. 康熙 皇帝 만년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폐단과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횡행했고, 조세 불균형과 토지 집중 현상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해지고 민란이 자주 일어났다. 황가의 친척들과 대신들이 국가의 재산을 마구 끌어다 쓰는 바람에 국고는 어느 새 바닥을 드러냈다. 황위를 노리는 황자들은 각자 폐를 결성해 사리를 도모했다. 이런 상황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강희가 여러 차례 정돈을 실시했지만, 무능하기 짝이 없는 황태자는 여색에 눈이 멀어 정사에는 관심이 없었

다. 크게 실망한 강희는 훗김에 황태자의 지위를 박탈했다가 다시 책봉하고 폐하기를 또 한 차례 반복했다. 거듭되는 황태자 책봉에 조정이 어수선해진 틈을 타 황자들은 모반은 피하고 난을 일으키는 등 황태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에 여념이 없었다. 황자들 사이의 분란을 지켜 보면서 강희는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넷째 황자는 신중하면서도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책략가 鄒思道 등의 도움으로 弊政을 정비하고 개혁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두드러진 활약상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康熙 皇帝는 임종 전에 황위를 넷째 황자 胤禛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으니 그가 바로 옹정황제다.

Ⅲ. 이물 분석

역사소설의 본질은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적 요소를 지닌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다. “소설은 문학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삼아 완전한 스토리 구조와 구체적 환경의 묘사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나타낸다. 생동감 있는 인물 이미지와 완전한 스토리 구조 그리고 인물의 처한 환경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소설이 반드시 갖춰야 할 3대 요소이다. 그리고 생동감 넘치고 감동적인 예술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⁵⁾ 그래서 인물의 이미지는 소설의 영혼이며, 인물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소설의 중심이다. 또한 인물을 통해 그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인물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인물을 통해 사회모순을 드러내고, 현실생활을 반영하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모순”과 “현실생활”이 바로 소설이 반영하고자 하는 주제이다. 그래서 작품 속 드러나는 이미지에선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작품을 분석할 때 작품 속 인물의 이미지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분석할 수 있다. “소설의 성공여부는 작품 속 인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의 이미지를 적절하게 부여했는지를 살펴려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 째는 인물이 진실되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는지 살펴야 한다. 둘 째는 함축된 의미가 인물의 이미지 속에 녹아 들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⁶⁾ 역사소설 속 인물이 역사의 실존인물이기 때문에 역사소설 속 인물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작업은 일반소설 속의 인물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따라서 역사소설 속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할 때는 역사적 근거를 무시하고 허구적 이미지를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 인물의 이미지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해야 하고, 동시에 인물의 실제와 허구 사이에서 그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二月河의 《康熙大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역사적 사실의 기초 위에서康熙

5) 繆正良, <簡析小說中人物形象的塑造>, 《成功教育》, 2011年第23期, 31쪽.

6) 馬振方, 《藝術小說論》, 北京大學出版社, 1999年版, 105쪽.

皇帝를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는 점이다. “二月河는 현대적 이념을 통해 역사자료에 새로운 영혼을 집어 넣었다. 또한 그는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해석했다. 인문학적 사고와 인도주의적 정신을 이용해 봉건황제의 심경과 그의 행위를 두드러지게 묘사했다. 이는 제왕의 공덕을 칭송만 하는 전통적인 역사 소설들과 달랐으며, 또한 좌경 사상에 기인하여 봉건황제를 비판하지도 않았다. 그의 작품은 인물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세심하게 묘사했으며, 인물들을 특정한 역사적 선상에 올려 놓고 이성적인 분석을 진행했다.”⁷⁾ 二月河는 康熙 皇帝의 업적과 과오를 함께 묘사했으며 그의 정치가로서의 성격과 그 성격이 지닌 약점 또한 함께 서술했다. 그리고 그의 정치 생활뿐만 아니라 풍부한 감정에서 비롯된 내면의 갈등까지 묘사하고 있다.

一. 正史의 康熙

康熙皇帝는 청나라 제4대 황제이며, 도읍을 북경으로 정한 이후만을 놓고 봤을 때는 제2대 황제이기도 하다. 연호는 康熙이며, “康”은 안녕을 “熙”는 흥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는 천하의 안녕과 만민의 흥성을 기원하는 의미를 뜻한다. 그는 8세 때 왕위에 올라, 14세 때부터 친정을 시작했다. 재위기간이 무려 61년에 달해 중국 역사상 재위기간이 가장 긴 황제이기도 하다. 그는 다민족 국가인 중국 통일의 수호자였으며, 청나라 흥성의 근간을 다졌다. “康乾盛世”라는 태평성대를 연 장본인이기도 하다.

順治 皇帝의 세째 아들로 태어난 강희 황제가 황위에 올랐을 때는 겨우 8살에 지나지 않았다. 순치 황제는 湯若望⁸⁾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희를 자신의 후계자로 정하게 된다. 康熙 6년 (1667년) 7월 7일에 태화전에서 친정의식을 거행하였고, 順治 皇帝의 신하였던 索尼、蘇克薩哈、遏必隆、鰲拜 등을 대신으로 삼아

7) <二月河歷史小說의 當代價值>, 王文霞, 西北師範大學, 2006年5月1日, 28쪽.

8) 湯若望, 자道未, 신성로마제국 크롬 (현독일) 사람이고, 天主教의 수도사, 신부, 학자이다. 崇禎조에는 吏局貢士를 담당했고, 청나라의 군대가 山海關을 돌파한후에 청나라에 귀복하였고, 钦天監監正을 임명되었다.

康熙 皇帝를 보좌하여 조정의 업무를 처리 하였다. 후에 그 조모인태황태후와 효장문황후의 도움을 받아 강희 9년에 집정대신인 鳌拜를 숙청하고 진정한 친정 체제를 시작하였다.

康熙 皇帝는 집정 기간 동안 팔기군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20세 때에는 吳三桂를 필두로 하는 三藩 세력을 8년 간의 전투를 통해 평정하였다. (1673年) 31세에 鄭氏⁹⁾수중으로부터 타이완을 복속시켜 통일 (1684年) 을 이루었으며, 44세에는 준가르 부족의 족장인 가르단의 반란 (1688年-1697年) 을 제압했다. 그리고 당시 동북지역을 침략한 러시아에 대항하면서 《尼布楚條約》을 맺어 150여 년간 동북 변경지방의 평화를 유지했다.

康熙 皇帝는 친정체제를 갖추고 난 후에는 백성들에게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게 하였다.¹⁰⁾ 그리고 역사 사료를 정리하면서 “京察、大計”등의 심사제도를 부활시켰다. 그는 일부 간신들에 의해 백성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 변복을 입고 북경 시내를 순찰하며 민심의 동향을 파악했다. 그 중 6차례에 걸친 남방 순례와 3차례의 동방 순례 등이 널리 알려진다.

康熙 皇帝는 한족 지식인을 우대했는데, 그를 위해 과거를 여러 차례 거행하고, 남서방 제도를 실시했을 뿐 아니라 곡부에 방문해 공자의 제사를 지냈다, 강희 황제는 강희자전, 고금도서집성, 여상고성, 수리정합, 강희영년력법등의 서적을 편찬했다.

《清史稿》에서 康熙 皇帝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聖祖 皇帝는 인자하고 효심이 깊으며 지혜롭고 용감하다. 어렸을 때 황위를 계승했으며 정사를 돌봄에 정성을 다하고 백성을 사랑으로 대하였다. 문무를 겸비하여 통일 중국의 대업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영토의 개척에도 있는 힘을 다하였다. 聖祖 皇帝는 매

9) ‘鄭成功’, ‘鄭經’과 ‘鄭克爽’ 3대를 말하는 것이다. ‘鄭成功’은 명나라 말기에 청나라에 대항했던 명장으로 민족 영웅이다. 1624년,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이 타이완을 침공했다. 1661년 ‘鄭成功’은 타이완 수복에 성공했다. 그 후로 ‘鄭成功’시대가 열렸는데 얼마 못 가서 병사했다. 그 아들인 ‘鄭經’은 스스로 연평왕이라 칭하고 청나라로의 귀속을 거부했다. 1681년 청나라 조정은 ‘鄭經’가 죽자 그의 아들이 ‘鄭克爽’ 어리고 타이완 내부 반란 세력과 결탁해 1683년 타이완을 청나라로 귀속 시켰다.

10) 청나라 초에 만주족 귀족이 대규모의 한족토지를 점거하였고 청나라 초에 악정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낳았다.

우 학식이 높고, 유가와 도가의 사상을 추종했으며, 그 학문적 깊이는 고금을 통틀어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오랜 시간 동안 德을 행하여 백성을 교화했으며, 결국 천하는 태평하고 사회는 안정되기에 이르렀다. 康熙 황제 때 번영의 국면은 후대 사람들이 기대해 볼 수는 있으나 이루기는 어려운 모습이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聖祖 皇帝는 “황제로서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또한 “학문과 덕행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여 백성들이 그를 마음에 두고 한시도 잊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聖祖仁孝性成，智勇天錫。早承大業，勤政愛民。經文緯武，寰宇一統，雖曰守成，實同開創焉。聖學高深，崇儒重道。几暇格物，豁貫天人，尤為古今所未觀。而久道化成，風移俗易，天下和樂，克致太平。其雍熙景象，使後世想望流連，至於今不能已。傳曰：“為人君，止于仁。”又曰：“道盛德至善，民之不能忘。”¹¹⁾

사회주의 신 중국을 건설한 모택동은 康熙 皇帝에 대해 아주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가 말하길：“康熙 皇帝의 첫 번째 위대한 공헌은 오늘날 현 중국의 영토에 기초를 다졌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가 계승한 이 넓은 영토의 기초는 바로 강희 황제 때 견고하게 다져진 것이며 …… 康熙 皇帝의 두 번째 위대한 공헌은 그의 통일전선정책이다 …… 또한 세 번째 훌륭한 것은 바로 그의 상과 벌을 확실히 하는 인재의 등용제도이다.” 모택동은 또한 다음과 같이 칭찬하고 있다：“康熙 皇帝의 학습 정신은 뛰어난 재능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다 근면 성실한 학습의 자세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는 몇 개의 소수 민족 언어 말고도 여러 외국어도 가능했다. 그는 군사가이자 정치가이며 또한 문인이어서 詩詞歌賦에 능통했고, 거문고와 바둑 서화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모택동은 또한 康熙 皇帝는 최초의 서양 자본주의 선진 지식을 이해하고 있던 진보적 군주라고 말하고 있다. 康熙 皇帝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수학, 천문, 지리, 의학, 생물학, 해부학, 농예학과 공정기술 방면에도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직접 과학기술서적 편찬도 하였다.”¹²⁾

역사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康熙 皇帝는 아주 훌륭한 황제로 《清史稿》에서는

11) 趙尔巽，《清史稿·聖祖本紀》，北京中華書局，1977年版。

12) 時鑑，《聽毛澤東講中國》，紅旗出版社，2003年版，363쪽。

康熙 皇帝를 아주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清史稿》속의 역사는 수정과 윤색을 거친 부분이 많다. 강희 황제는 타이완을 통일한 이후 해상을 개방 했는데, 식량이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염려해 南洋무역을 금지한다. 결국 이러한 쇄국정책은 청나라 발전의 후퇴를 가져오게 되어 청나라가 아편전쟁 후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이 밖에도, 康熙 皇帝 때 시작된 문자옥 역시 많은 이의 지탄을 받는다. “문자옥은 중국 역사상 특수한 사회 현상으로 봉건 통치자의 문화 전제를 강화하고 강력한 통제 수단인 하나였다. 문자옥이란 통치자가 통치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수단으로 문인의 작품의 일부 내용을 트집잡아 죄를 물었던 사건이다.”¹³⁾ 청나라 시기에는 康熙, 雍正 그리고 乾隆 황제까지 문자옥을 이용해 문인들을 탄압했는데 강희 황제 때에는 비교적 엄하지 않았으나 총 11건의 문자옥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明史》사건과 《南山集》사건이었다.

《明史》사건

《明史》사건은 順治 皇帝 시기에 발생해 康熙 皇帝 2년에 죄가 확정됐다. (1663), 康熙 皇帝는 당시 친정을 시작하지 못하였다. 절강성 호주의 상인 莊廷龍은 명나라 말기의 대학사 朱國禎의 자손인 朱國禎가 쓴 명나라 역사본을 구입했다, 莊廷龍은 두 눈을 실명한 맹인으로 맹인이면서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左丘明을 모방하며 역사서를 발간하는데 청나라 사람인 朱國禎의 책에 부족했던 崇禎朝와 南明의 역사를 덧붙였다. 책인 완성된 후 제목을 《明書》라고 수정하고 자신이 발간한 책은 朱國禎이 쓴 내용을 보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莊廷龍은 이 책을 발간하지 못하고 사망했는데, 책 내용에는 만주족과 명나라의 노예관계를 가감 없이 수록하고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명나라의 연호를 사용해서 반역의 뜻을 지녔다고 의심받는다. 이런 吳之榮의 고발을 莊廷龍의 부친 莊允誠은 뇌물로 수습했으나 吳之榮의 두 번째 고발로 인해 사건은 겁잡을 수 없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관리를 파견해 진상을 조사하게 했다. 그로 인해 책의 출

13) 史革新, <文字獄危害의淺談>, 《尋根》, 2003年02期, 51쪽.

판에 관여한 인사들이 전족이 멸하는 처벌을 받았는데 그 인원이 천 여명에 달했다.

《南山集》 사건

《南山集》 사건은 康熙 皇帝 50년인 1711년에 발생했는데 한림원 편수인 戴名世가 공직에 오르기 전에 명나라의 야사를 연구하고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만나 《南山集》이라는 책에서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남명의 연호를 사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강희 황제 때에도 남명이 존재하고 順治 皇帝의 정통성을 훼손되었다라고 여겨 그 죄를 물어 수백 명을 처벌하였다.

二. 小說의 康熙

1. 性格 形成의 배경

“천자 즉 황제에 대한 중국인의 감정은 매우 복잡 미묘하다. 적대, 멸시, 공포, 숭배, 흠모 그리고 호기심 등등 겉으로는 가까운 듯하지만 그의 권력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왜 그런 것일까? 황제는 최고 통치자로서 다른 이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황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반면에 어느 누구도 황제를 견제할 수 없었다. ...”¹⁴⁾

그러나 이런 황제에 대한 이미지는 모두 백성들이 상상에 의한 결과물인데, 이는 사람들이 황제에 대한 감정이 복잡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황제가 한 가지 모습만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황제 역시 인간일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 다양하고 복잡한 성격을 지녔을 것이며 천자라는

14) 凌力, <天子-孫子-孩子——有矣〈暮鼓晨鐘〉创作의思考>, 《当代作家評論》, 1994年第01期, 60쪽.

겉옷 안에는 그들도 일반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을 지녔을 것이다. 二月河는 《康熙大帝》中에서 황제가 갖고 있는 신비한 이미지를 벗겨내고 그들의 피와 살을 덧붙여서 다양한 면모의 康熙 皇帝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내면세계를 파헤쳐 그들의 영혼이 처해 있는 곤경과 천자의 비극적 운명을 표현해 냈다. 이러한 康熙 皇帝의 내적 갈등은 그 성격 형성에 있어 일정 정도의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1) 皇帝 신분이 속박한 인간 본연의 천성

어떤 사람들은 황제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 여겼다. 왜냐하면 어떤 권력도 그들을 속박할 수 없을 거라 여겼기 때문이다. 봉건제도를 살펴보면 확실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황제는 권력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 보면 대권을 차지했으니 그 어떤 세력도 황제를 제압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황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된다. 하지만 황제는 무궁무진한 권력을 갖고 있는 동시에 그가 갖고 있는 권세와 신분은 무형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원히 황제의 자유를 제약해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다시 말해 황제가 갖고 있는 권세와 신분은 그 자신을 옴아 매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즉 황제는 황제라는 신분을 획득한 그 순간부터 권력의 주인이 되는 동시에 권력의 노예가 되어 가면을 쓰고 권세와 신분이라는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康熙 皇帝가 처음 정치 무대에 나타난 것은 순치 황제가 서거를 가장하여셋째 황제인 玄烨 (康熙皇帝) 에게 보위를 물려주었을 때이다. 셋째 황자 玄烨는 황태자의 신분으로 가서 납관의식에 참여했을 때이다. 원문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

蘇麻喇姑는 곧 여덟 살 난 玄烨을 황태후의 앞에 데리고 왔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玄烨은 주눅거리며 황태후와 태후에게로 다리가 인사를 올렸다.

“할머니, 나 유모할멈이랑 손잡고 갈래!”

유모할멈이란 바로 위동정의 어머니 손씨다. 손씨는 얼른 황태후의 눈치를 보며 다가

가 玄燁의 손을 잡고 말했다.

“황태자님, 오늘부터 황제가 되는 건데 예전처럼 떼쓰고 장난치면 안되나이다. 유모는 하인이라 그런 자리엔 나타날 수가 없게돼 있나이다.”

그러나 玄燁은 쉽게 타협하려 하지 않았다.

“蘇麻喇姑가 그러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마마의 명을 어기면 목이 달아날 각오를 하라고 했어요. 어명은 곧 천명이라 했다고요. 그치? 蘇麻喇姑. 그러니 나 지금 명령 내릴 거야! 유모할멈더러 날 데려다 주라고!”¹⁵⁾

蘇麻喇姑从阁后拉着八岁的玄燁走来。他好像有点不太自然，给太皇太后和太后各请了个安说道：“皇额娘，我要阿姆一同去！”

“阿姆”便是奶妈。孙氏听到皇太子叫她，赶紧走出来，拉着玄燁的手说：“好阿哥，听话，从今儿个起，您就是皇上了，不能再任性。阿姆不过是一个包衣奴才，这种地方是去不得的。”

“苏麻喇姑告诉我，无论谁都得听皇上的，是不是？皇上的话就是圣旨，是不是？现在我就下圣旨：‘阿姆陪我去！’”玄燁执拗地说。¹⁶⁾

康熙 皇帝가 막 즉위했을 때는 8살에 불과했으며 젓비린내가 가지지 않은 자신의 유모에 매달리는 순진한 어린아이였다. 그는 유모인 손씨가 자신 옆에서 장례를 치루고 모든 일을 도와줄 거라 생각했지만, 황제가 된 그의 곁에 신분이 낮은 유모 손씨는 더 이상 곁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는 황제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유모 손씨가 자신 곁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나이 어린 康熙 皇帝가 구속 받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볼 수 있는 단면이다. 친한 사람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아이의 천성, 즉 황제의 신분에서는 유모 손씨를 자신 곁에 두고 싶어하는 그 자그만 바람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마도 나이 어린 그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뤄야 하고 그 권세를 얻고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지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인 셈이다. <奪宮初政>제3회에는“幼齡童玄燁登皇位，白髮叟索尼立誓言”중에, 염을 하는 의식을

15) 二月河 저, 한미화 역, 《강희대제1》, 산수야, 2005年版, 103쪽.

16) 二月河, 《康熙大帝·奪宮初政1》, 河南文藝出版社, 1999年版, 56쪽.

마친 康熙 皇帝 가 4명의 대신을 맞이하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기분 좋은 웃음을 흘리며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누군가 고래고래 소리를 내지르며 불러 세웠다.

“거기 못 내려놓을까?”

깜짝 놀란 세 사람이 주춤하고 머리를 들어보니 부도태감(副都太監)오양보였다. 오양보는 얼른 강희를 향해 비굴하게 웃어 보이고 나서 이내 돌아서더니 독기를 품은 두 부름 뜨고 호되게 야단쳤다.

“대낮에 माम을 안고 히히거리며 뺏들 하는 거야!”

겹이 많은 손씨는 어른 강희를 내려놓으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마마께서 워낙 어린 데다……”

“뺏이? 아무리 어려도 황제자, 황제! 정신 차려 이년아, 동네아인 줄 알어?” 17)

八岁的小皇上康熙登基即位，下朝回来，由奶娘孙氏抱着，苏麻喇姑陪着去见太皇太后。刚转过一条巷口，就听有人厉声喝道：“放下！”三个人吓了一跳，抬头一看，原来是太监吴良辅站在面前。

吴良辅先向康熙赔了个笑脸，板起面孔冲着孙氏训斥道：“这样子抱着皇上满宫里跑，成个什么体统？”孙氏素来温顺老实，见吴良辅脸色铁青，有点害怕，讷讷地放下康熙，说：“皇上还小……” “小？小也是皇上！你以为是你自家的孩子吗？”18)

吳良輔의 한 마디“小也是皇帝”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康熙 皇帝가 비록 어린 나이에 황제에 즉위했지만, 반드시 황제가 지녀야 할 위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제가 되고 나서 그는 그 대가로 자유를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다. 아마도 그와 비슷한 8살 꼬마애가 아직도 엄마 품에서 어리광을 부리고 있을 시기에 나이 어린 康熙 皇帝는 자신의 천진난만함을 숨기는 것을 배워야만 했고 구속에 복종해야만 했다.

(2) 皇帝 신분이 가져온 고독

황제는 늘 가면을 쓴 채 생활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신하와 백성들

17) 二月河 저, 한미화 역, 《강희대제1》, 산수야, 2005年版, 128쪽.

18) 二月河, 《康熙大帝·奪宮初政》, 河南文藝出版社, 1999年版, 63쪽.

앞에서 천자의 위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위엄이라는 가면으로 위장하는 것 역시 황제가 신하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 중 하나이다. 또한 이 가면 때문에 황제는 친구를 사귄 수 없는 비극적 운명을 갖게 된다.

魏東亭은 康熙 皇帝의 유모 손씨의 아들이다. 康熙 皇帝는 어렸을 때 부터 유모 손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서 魏東亭과 우정을 나누게 되었고 훗날에는 康熙 皇帝 앞에서 걸을 수 있는 “御前行走”¹⁹⁾라는 벼슬을 하게 되었다. 제1권인 <奪宮初政>에서, 康熙 皇帝는 螯拜 와의 권력 투쟁 중에 魏東亭에게 중임을 맡기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강희 황제가 魏東亭을 얼마나 믿고 있는 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이에 魏東亭 역시 康熙 皇帝의 명을 받아 충성으로 군주를 보호하며 목숨 바쳐 康熙 皇帝를 도와 螯拜를 잡아들임으로써 가장 큰 공을 세운 신하가 된다. 설사 이처럼 돈독한 사이라 하더라도, 康熙 皇帝는 결코 魏東亭 앞에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6살 때부터 읽은 《帝王心鑑》에서는 군주의 위엄은 해바라기 세력들의 무조건적인 숭배와 추대로 지켜 지기도 하지만 군주 자신의 의리와 지혜에 의해서도 지켜질뿐더러 달을 듯 말 듯한 신기루 같은 거리감에서도 나타난다. 적당한 거리가 가져다 주는 신비함과 거리감이 없다면 황제일 자리도 존엄성은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²⁰⁾

또한 <奪宮初政>중에, 康熙 皇帝는 龍儿이라는 가명을 만들어 자신을 숨긴 채 魏東亭의 추천을 통해 알게 된 伍次友를 스승으로 삼는다. 수업을 듣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 우정을 쌓아가게 된다. 伍次友가 康熙 皇帝의 신분을 모르고 있을 때 조정에 대해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했고, 康熙 皇帝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 하지만 龍儿이 바로 황제라는 비밀이 밝혀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다:

순간 모든 것을 깨달은 오차우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용……”자를 꿀꺽 삼키며 급히 외쳤다.

“용주만세(龍主萬歲)!”

19) 봉건 군주 옆에서 칼을 들고 있는 호위병을 말한다. 봉건 사회에서는 모든 호위병이 칼을 소지한 채 황제 앞에서 호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직 고급 호위병만 황제 옆에서 황제를 호위할 수 있었는데 이들을 “御前行走”라고 하였다.

20) 二月河, 《康熙大帝·奪宮初政》, 河南文藝出版社, 1999年版, 348쪽.

그와 동시에 머리를 깊숙이 숙여 조아렸다.

평소에 자존심 강하고 성품이 바르기로 소문난 멋쟁이 선생님 오차우가 마치 말 잘 듣는 어닌애처럼 시키는 대로 절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강희는 순간적으로 높은 데서 굽어보는 자의 만족감과 쾌감은 느꼈다. 그러나 오차우가“용…….”에서 급히 “용주”로 바뀌 호칭하는 데서 강희는 또한 고독과 비애를 동시에 느꼈다.

“사제간의 인연은 이로써 끝나는그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강희는 가벼운 한숨을 쉬며 오차우를 불렀다.

“오 선생님!”²¹⁾

啊！这是真的，龙儿就是皇上，伍次友终于明白过来了，他脱口而出叫道：

“龙——那个儿字还没出口，亏他聪明马上改口为：‘龙主万岁！’说完便深深地磕下头去。看着平常倜傥风流、挥洒自如的伍次友被索额图他们摆布得如痴似呆，看伍次友在自己面前诚惶诚恐地跪着，康熙的心里不由得感到一种骄傲和满足，更加体验到主载天下的威风。可是，霎时间，他又觉得一阵惆怅，几年来，半师半友，亲密无间的情意从此完了。他说了声：

“先生请起，赐坐！”²²⁾

평소에 멋을 알고 예법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뛰어난 재능으로 龍兒를 감동시켰던 伍次友는 지금 康熙 皇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황공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康熙 皇帝는 마음 속으로는 만족과 자랑스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미 예전의 사제관계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스승과 제자는 모두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부터는 군주와 신하로써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제3권 <玉宇呈祥>에는 康熙 皇帝가 명릉을 시찰하며 느끼는 고독감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온다. 주원장의 왕릉을 바라보며 비로소 황제에게는 친구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孤”를 “寡”라고 하는 것이 허구가 아님을 깨닫는다. 그는 伍次友에게 관직을 주지 않고 자신의 곁에 두려던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어명을 내려 伍次友에게 자신을 “龍兒”라고 부르도록 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의도와 달리 伍次友 역시 그의 곁을 떠나고 만다. 이때부터 그는 슬픔을 느끼는데 우리는

21) 二月河 저, 한미화 역, 《강희대제3》, 산수야, 2005年版, 320쪽.

22) 二月河, 《康熙大帝·奪宮初政》, 河南文藝出版社, 1999年版, 365쪽.

이 장면에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의 배후에는 깊은 고독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력이란 결국 무형의 벽과 같아서 비록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그 벽에 둘러 쌓인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충직한 魏東亭도 그러했다. 권력이라는 무형의 벽은 황제를 그 주위의 모든 사람과의 우정,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았고, 황제와 그의 친구, 가족 사이에 영원히 건널 수 없는 도량을 만들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황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몇 대에 걸쳐 공덕을 쌓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황족의 아이들은 금 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나 돈, 권세, 지위와 일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부귀영화를 갖고 태어났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이월하는 황족의 황금 겹옷을 찢어 버리고 겹으로는 온정이 흘러 넘치지만 실제로 참혹한 현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보통 사람들에게 “집”이란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지만 황족 사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금빛 찬란한 격투장과 같을 것이다. 이들이 사는 곳에는 평온함보다 속임수가 판을 칠 것이고, 그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것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지위와 권력, 즉 봉건 군주사회의 최고 통치자인 황제의 지위를 얻는 것이다. 누구나 탐내는 자리,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황족의 아이들은 그 자리를 얻으려 자신의 생명도 내놓아야 했다. 왜냐하면 황제의 자리는 사람을 황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하게 만든다. 그 고귀한 자리에 오른 황제는 자신이 독점한 권세와 신분을 지키기 위해 무정하게 경쟁자들을 제거해 버린다. 설령 그 대상이 자신의 자식이거나 친형제라 할지라도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²³⁾

황족이 지켜야 하는 규칙에는 가령 황제와 아들 사이에서도 예절을 중시해서 “君父臣子”의 경계를 뛰어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즉 그들의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뛰어넘을 수 없었다. 필연적으로 황제가 아무리 자신의 아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마음 속 깊이 감추어 표현해서는 안되었기에 아들 앞이라 하더라도 천자의 위엄을 유지해야 했다. 아들 역시 위엄의 가면을

23) 張慧敏, <百年滄桑, 一曲血色悲歌——試論二月河、凌力系列歷史小說의悲劇意蘊>, 廣西師範大學, 2007年4月1日, 15쪽.

쓴 아버지 앞에서 다른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신하가 갖추어야 할 모든 예법을 지켜야 했다. 예를 들어<亂起蕭牆>에서는 넷째 아들과 열 셋째 아들이 강희 황제를 알현하는 장면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저쪽에 무릎 꿇고 기다려. 대신들과의 의사(議事)가 끝나는 대로 짐이 물어볼 게 있어!”

부친의 성격을 잘 아는 두 사람은 말없이 한 쪽으로 물러나 무릎을 꿇고 기다렸다. 윤상이 힐끔 쳐다보니 강희는 전보다 조금 수척해졌지만 기력은 더 왕성해 보였다. 팔자 눈썹 밑의 두 눈은 날카롭게 빛났고 한 뺨은 되게 기른 턱수염은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다.²⁴⁾

二人一听，话音不善，战战兢兢地趋步而入，刚要行礼，康熙一摆手止住了：“你们俩先跪到一边去。这会儿，朕正和大臣议事，等一会儿有话问你们。”

胤祥跪在地上偷眼向康熙瞟了一眼：父皇比他们出京时似乎瘦了一点，不过看来精神很好，双目炯炯有神，颊下胡须梳理得十分整齐，只是，好像正在生气，脸色铁青，毫无笑意。²⁵⁾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만날 때 군신의 예를 지켜야 했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힐끔거릴 수 밖에 없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황제 가족들은 일반 백성들의 천륜의 정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황제의 자리는 황족으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이 목표로 삼았다. 康熙 皇帝 역시 고귀한 황제 자리에 대해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玉宇呈祥>중에, 康熙 皇帝는 과거 시험을 열었을 때 대전에서 대신들과 과거에 참여한 유생들을 접견했다. 모든 이가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은 옥좌에 있던 康熙 皇帝를 도취시켜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게 했다. 모든 이가 흠모하고 경외한다는 감정은 옥좌에 앉아 있는 모든 황제들을 도취시켜 황제의 마음 속에서 옥좌에 대한 감정을 떨칠 수 없게 했다. 이것이 모든 황실의 남자들이 황제의 옥좌를 목표로 하는 이유이다.

모든 황제들은 모두 형제 혹은 자녀 사이에 궁중 암투가 벌어지는 것을 원하

24) 二月河 저, 한미화 역, 《강희대제10》, 산수야, 2005年版, 96쪽.

25) 二月河, 《康熙大帝·亂起蕭牆》, 河南文藝出版社, 1999年版, 48쪽.

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암투를 황제 역시 막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 자신 역시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마련이었다. 유가사상의 영향으로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혈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간에 벌어진 권력 다툼은 모든 이로 하여금 가슴을 아프게 했으며,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황실의 권력 다툼은 언제나 엄청난 대가를 치뤄야만 했다.

康熙 皇帝 역시 형제들과 골육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亂起蕭牆>중에, 자식들의 권력 다툼에 康熙 皇帝의 마음 속에는 괴로움과 모순들로 가득 찼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황제로서 황권이 다른이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고, 동시에 권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택해야만 했다. 이런 고통은 황제 자리에 눈이 먼 아들들은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친구에게도 털어 놓을 수 없었다. 단지 혼자서 묵묵히 마음 속 고통을 견뎌야 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강희 황제는 지혜롭게 螫拜를 제거하고 조정 대권을 찾아왔다. 또한 三藩을 평정하여 서남 지역의 위기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친히 準葛爾 평정에 참여하여 동북지역을 안정시켰다. 성장 정책을 펼쳐 康乾盛世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또한 자신이 명군이 되길 바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혈족이 천년만년 권력을 유지하길 바랐다.

윤잉의 생모인 황후 허서리씨는 소어투의 질녀로서 육궁의 살림을 도맡아 해 오며 깔끔하고 세련된 살림습씨를 인정받았다. 유년시절 康熙 皇帝와 죽마고우의 정을 이어오며 매일 같이하지는 않았지만 남다른 정을 느꼈던 두 사람이었다. 주삼태자가 황궁을 노려 태감들을 매수하여 일으켰을 때 만삭이 된 몸으로 현장에 나와 康熙 皇帝를 보호하기 위해 뛰었던 허서리씨는 결국 지나친 충격으로 난산을 했고 급기야는 목숨까지 잃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기에 康熙 皇帝는 허서리씨가 남기고 간 자신의 혈육인 윤잉을 유난히 애지중지 해왔고 과잉보호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품어 왔다.²⁶⁾

赫舍里氏는 康熙 皇帝의 본처로 두 사람의 감정은 매우 돈독했다. 康熙 皇帝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모두 황태자 胤禎에게 전이되어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를 가르쳤다고 할 수 있다. 康熙 皇帝는 황태자를 훌륭한 황제로 키우기로 다짐하고

26) 二月河, 《康熙大帝·奪宮初政》, 河南文藝出版社, 1999年版, 308쪽.

다른 황자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황태자가 6살이 되기 전에는 황제 자신이 황태자를 가르쳤고, 6살이 되던 해에는 대학 張英 과 李光地를 황태자의 개인교사로 청했다. 황태자가 13살이 되자 暢春園 에 있는 无逸齋 로 보내 공부를 시켰다. “无逸”은 노는 걸 탐할 수 없고 향락을 바라면 안 된다는 뜻으로 无逸齋 에 들어가면 한가하게 쉬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황태자가 대업을 잇기어렵게 되는데, 작품 속에서는 “生性懦弱、多疑。康熙 虽然疼爱他，却又对他不满意。”²⁷⁾ 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康熙 皇帝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키우고자 했던 황태자 자신도 황위에 대한 욕심을가지고 있었는데, <亂起蕭牆>제4절에는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태자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태자의 입김에 불려 다니다시피 하던 소어투가 윤잉이 서른 살 되던 해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고를 저지르는 바람에 강희와 윤잉의 돈독했던 부자 관계는 김이 가고야 말았다.²⁸⁾

胤礽自打出了娘胎，就被立为太子，如今已经当了三十三年了。可是，父皇龙体康健，他再急，也还得当太子。那年，索额图曾试图谋反，囚禁康熙，扶太子登基，可是被精明的康熙发觉了。索额图被终身监禁，太子虽然没受处分，康熙却从此对他有了几分戒心。²⁹⁾

자신이 아끼던 황태자가 유약하여 대업을 맡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너무 서둘러 옥좌에 오르려 해서 康熙 皇帝가 얼마나 실망하고 마음이 아팠을지 짐작이 된다. 康熙 皇帝가 국고의 재산을 점검할 때 황태자가 함부로 호부의 재산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황태자를 책망하며 마음 속 깊이 숨겨두었던 실망감과 분노를 드러냈다.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해라 아예! 너 때문에 언제까지 속을 썩어야 해! 명주가 널 해코지했을 때 짐은 그의 집을 뒤집어 버렸었지. 소어투가 너에게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기에 짐은 다짜고짜 그를 가둬버렸잖아! 언제까지 짐을 종이를 들고 다니며 똥구멍을 닦아 줘야겠어! 짐한테 욕을 얻어먹고 애꿎은 나얼쭈 군왕(郡王)을 때려 분풀이를 했을 때 짐

27) 二月河, 《康熙大帝·奪宮初政》, 河南文藝出版社, 1999年版, 310쪽.

28) 二月河 著, 韓美華 譯, 《강희대제9》, 산수야, 2005年版, 187쪽.

29) 二月河, 《康熙大帝·亂起蕭牆》, 河南文藝出版社, 1999年版, 162쪽.

이 들고일어나는 관원들을 다독이느라고 얼마나 노심초사했었는지 알아? 그래고 뒤에가서 투덜댄다면? 뭐 사십 년 동안 황태자 자리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도 천무후무 할 거라고? 대체 무슨 뜻이야? 태자 꼴 좋다! 술선수범은커녕 나랏돈을 빼내 흥청망청 쓰거나 하고!”³⁰⁾

“你身为太子，却不想上进，置国家、社稷于不顾，把朕的教训弃之一旁。你，你，你把朕的脸都丢尽了！朕万万想不到，刷新吏治，惩治贪赃，第一个碰上的就是你这个不肖的儿子！你想想，这些年朕是怎么疼你、爱你、保你、护你的。明珠要害你，朕将他抄家罢官；索额图要陷你于不义，朕圈禁了他；你无端责打纳苏尔亲王，朕顾全你的脸面，苦口婆心地替你安抚臣工。可是你又是如何做的？朕听说你在背后发牢骚，说什么‘当了快四十年太子，千古绝少’。这话是什么意思？你，你想盼朕早点死吗？你三十好几了，难道还要朕扶着你走路吗？！”³¹⁾

황태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할 때는 다시 보통의 아버지로 돌아와 눈물을 닦으며 황태자에게 말했다.

“스무 명이 넘는 황자들이 있어도 짐은 항상 네가 제일 안쓰럽고 품어주고 싶었어. 네가 태자여서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 때문이지! 이 나라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짐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주었어! 짐은 결코 잊을 수가 없어. 네가 착실하게 잘 해나가는데 다른 황자들이 뒤에서 찌르려 든다면 짐은 당장 그를 없애 버릴 거야! 두고 봐! 하지만 네가 스스로 무덤을 팔 경우에는 짐에 앞서 하늘이 먼저 벌 내릴 것이다, 오늘 실로 참 많은 얘기를 나눴구나, 그만 가 봐라!”³²⁾

“唉，在朕的二十多个皇子里朕最疼爱的是你。因为你不但是太子，还是皇后的亲生儿子。你的母亲有功于社稷，有恩于朕。朕看在你生母的面子上，总是对你格外施恩。只要你立得正、站得稳，哪个大臣、皇阿哥想加害你，朕必定严加惩处，或杀或贬，决不手软。可是你要是自己胡作非为，获罪于天，又叫朕如何保全你呢？下去好好想想，该怎么办你自己拿主意吧！”³³⁾

30) 二月河 著，韩미화 译，《강희대제9》，산수야，2005年版，275쪽.

31) 二月河，《康熙大帝·亂起蕭牆》，河南文藝出版社，1999年版，194쪽.

32) 二月河 著，韩미화 译，《강희대제9》，산수야，2005年版，277쪽.

33) 二月河，《康熙大帝·亂起蕭牆》，河南文藝出版社，1999年版，195쪽.

이 단락에서 康熙 皇帝는 황제로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황태자의 태도에 대한 아픔, 옥좌에 욕심을 부리는 황태자에 대한 실망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모순은 황제 자신이 홀로 안고 가야 했다.

2. 康熙의 성격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이 두 가지 개념은 愛德華·摩根·福斯特가 《小說面面觀》이라는 책에서 제기한 것이다. 평면적 인물과 대비해서 입체적 인물은 “문학작품 속에서 복잡한 성격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입체적 인물의 묘사는 좋으면 다 좋고 나쁘면 다 나쁘다는 단순한 분류 방법을 탈피하고 생활의 본래 모습에 근거하여 인물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진실되고 더욱 다양하게 人性의 복잡함과 풍부함을 나타내고 있어 더 높은 심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³⁴⁾ 二月河가 쓴 康熙 皇帝가 바로 “입체적 인물”이며, 그는 의식적으로 심도 있게 역사인물의 人性적 측면을 파헤치고 서술하고 있다. 작가의 인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진정으로 봉건제왕을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인물은 더 이상 평면적으로 간접하는 이야기 행위자가 아니라 생명력을 지닌 입체적 인간이며, 독자들에게 강희 황제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그리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 그 성격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1) 긍정적 성격

① 인자함과 아량

인자함과 아량어느 학자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5천 년 역사 가운데 黃帝에서 마지막 황제인 溥儀에 이르기까지, 4643년 동안에 모두 559명의 황제가 존재했다. 만약 봉건왕조만 계산한다면, 기원전 221년 秦王이 “皇帝”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청말 마지막 황제인 溥儀까지는 모두 2132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 봉건황제의 수만도 494명에 이른다. 이러한 수 백 명의 황제 중에서 夏桀 商紂와 같은 폭군도 있고, 周武王과 같은 어진 임금도 있으며, 明神宗과 같은 주

34) 張德林, <論圓形人物與扁平人物——小說藝術論>, 《文藝理論研究》, 1992年第12期, 47쪽.

색에 빠진 황제도 있고, 또한 明朝 崇禎皇帝와 같은 의심 많은 황제도 있다. 이러한 황제들과 비교해 볼 때 康熙 皇帝의 특징은 바로 성격이 너그럽고 후덕하며 인자하다는 사실이다.

康熙 皇帝는 무공이 탁월한 황제이긴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仁을 근본으로 하여 정책을 관용 있게 펼쳤다는 것은 매우 보기 힘든 일이라 할 수 있다. 康熙 皇帝는 어릴 적부터 유가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仁”은 바로 孔 孟사상의 핵심내용이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康熙 皇帝의 사상과 행동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제3권<玉宇呈祥>에서 康熙 皇帝가 명릉을 시찰하는 장면에서 “康熙 皇帝는 주원장이 묻혀 있는 묘지를 보며 처량하고 고독한 기분이 들었다. 원래 많은 일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으나 금세 이해가 갔다. 명나라 태조는 처음에는 황각사의 중에게게무시를 당하였지만 나중에는 많은 대신들을 축출했다. 康熙 皇帝는 그런 잔인함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묘사했다.

康熙 皇帝는 주원장이 그와 함께 천하를 평정한 대신들을 도살한 행위를 반대했을 뿐 아니라 그의 그런 행동을 잔인하다고 여겼다는 내용은 康熙 皇帝의 성격이 인자함을 나타내기 위해 그가 대신들에게 주원장 같은 도살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대비 시킨 것이다.

제1권인<奪宮初政>에는, 康熙 皇帝가 즉위 초에 螯拜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황제를 시해하고 역모를 도모했음에도, 邊必隆의 대사를 인용해 강희 황제의 인자함을 드러냈다. 邊必隆은 “《大清律》의 의거해 이러한 죄에는 그의 고위를 막론하고 참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소신이 생각하기에는 螯拜는 건국에 관여한 공신으로 그를 참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는 성군의 인자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참수하는 것만으로도 황제의 인자함을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康熙 皇帝는 끝내 螯拜를 참수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넓은 인자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제3권 <玉宇呈祥>제34장은 “郭琇忠犯顏批龍甲 康熙仁大度諒賢臣”이라고 제목이 정해졌다. 이 장에는 죄인 郭琇가 군신들 앞에서 康熙 皇帝의 측근인 태감 李德全을 “거리에서 말을 몰아 백성들을 위협에 빠뜨렸다”고 꾸짖으며 그의 주인인 康熙 皇帝가 그런 가신을 용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원문에

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소어투는 강희를 오래 따라다니다 보니 이제 강희의 성격을 알 것 같았다. 곽수가 자신의 실언을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할 강희였다. 소어투는 급히 곽수에게 눈짓을 보냈다. 하지만 곽수는 간절한 소어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머리를 조아리더니 큰소리로 말했다.

“마마께서는 절주지주(桀紂之主)이십니다……마마께서 만인들만 중용하시니 한인 관리들이 어찌 조정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관리들이나 일반 백성들 중에 아직도 전명을못 잊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건 마마께서 은연중에라도 자신을 만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

이덕전의 행동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로 강희는 곽수를 그냥 내버려 두려고 했었다. 하지만 곽수가 강희의 체면을 마구 짓밟았다는데 강희는 다시금 분노했다. 지나친 흥분으로 어지럼증을 느낀 강희가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잠시 진정을 취했다.

……

강희는 들을수록 흥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흐뭇한 시선으로 곽수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출중한 인재를 명주는 무슨 속셈으로 전혀 모른 척할 수가 있었던 말인가!

……

고사기, 자네가 조서를 작성하게!

강희가 답답한 표정으로 불러주었다.

곽수가 지나치게 불경스런 말투로 일관했지만 나라를 위하는 충심이 밝은 보름달 같아서 짐은 그 죄를 묻지 않는다. 아울러 곽수에게……도찰원(都察院) 우도어사(右都御使)를 겸하게 한다.³⁵⁾

索额图跟康熙久了，知道皇上此刻的脾气，郭琇只要承认刚才的话是失言，这事就算过去了。忙使眼色叫郭琇赔不是。不料那郭琇双手据地，一个头叩下去，竟大声道：

“皇上乃是桀纣之王!……今皇上偏重满人，汉人岂能尽忠朝廷？如今四方之士尚未臣服，天下之民就有追恋前明者，全是因皇上自己总看自己是满人之故。”

……

35) 二月河 著, 한미화 역, 《강희대제8》, 산수야, 2005年版, 187쪽.

郭琇还要再说下去，康熙却已忍无可忍了。今天因李德全犯法办砸了差事，康熙不打算重处郭琇，不料一句回话，却引出了郭琇这么一大篇文章，真如火上浇油。康熙气得简直要发病，只觉得一阵头昏目眩，差点晕倒，忙用手扶住了楹柱。

……

康熙听得神采焕发，不仅欣赏地看了郭琇一眼：这样一个人才，明珠怎么搞的，竟似一点也不知道！

……

康熙见众人进来，平静地说道：“高士奇，你来草诏！郭琇犯言直谏，言语之间，虽多有不敬，然公忠之心皎然如月。所言过激之词，朕不加罪——着郭琇补……都察院右都御使之职！”一听这话，众人全愣了！³⁶⁾

“索额圖는 康熙 皇帝를 따른 지가 오래되어 황제의 이 같은 성격을 잘 알고 있으며, 郭琇가 방금 말한 내용이 실언이었음을 인정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했다. 이는 索额圖의 심리를 통해 康熙 皇帝의 관대함을 나타내는데 郭琇는 오히려 康熙 皇帝를 “桀紂之君”이라 책망한다. 하나라의 桀와 상나라의 紂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폭군으로 어떤 황제건 자신을 “桀紂之君”에 비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康熙 皇帝는 “단지 한 순간 정신이 혼미하여 기둥에 의지해야 겠다.”라는 말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 康熙 皇帝는 郭琇의 말을 듣고 그가 뛰어난 인물이라 여겨 그의 관직을 높여 주어 주위에 있던 이들을 놀라게 했다. 작가는 이를 통해 康熙 皇帝의 인자함과 큰 배포를 드러냈다.

이 밖에도, 康熙 皇帝는 백성들의 고통에 관심이 많아 종종 변복을 한 채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며 민심을 이해하고 재위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었다. 타이완이 수복되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사람을 파견해 타이완 백성들을 위로했다. 이는 康熙 皇帝가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사상을 구현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하겠다. 康熙 皇帝는 일생 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으나 근본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다. 三藩의 吳三桂나, 타이완의 鄭經 아니면 蒙古의 葛尔丹이건 간에, 그는 우선 마음을 얻는 것을 우선시 여겨 매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군사를 일으켰다. 이런 것들 역시 康熙 皇帝가

36) 二月河, 《康熙大帝·玉宇呈祥》, 河南文藝出版社, 1999年版, 314쪽.

仁을 근본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리려 했다는 치국사상의 표현인 셈이다. 康熙 皇帝의 시호는 “仁”황제인데,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인 셈이다.

② 인재에 대한 해안

인재를 등용함에 康熙 皇帝는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고 능력에 따라 관직을 부여했다. 周培公은 举人 출신으로 학식이 풍부했다. 그러나 북경에서 거행된 과거시험에서 답안지에 “玄”자를 쓰지 않아 낙방하게 된다. 그러나 康熙 皇帝는 그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관례를 깨고그에게 ‘兵部主事’라는 관직을 내렸다. 周培公에 대해 원문에는 아래와 같이쓰였다:

부굉렬이 북경으로 쓰는 두명의 서무관(書務官)과 함께 타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젊은 진사(進士)였다. 길고 선명한 팔자(八字) 눈썹이 인상적인 젊은 진사는 주위 사람들은 거의 의식하지 않는 듯 다리를 꼬고 앉아 흥미로운 표정으로 천진 부두의 설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여기저기 기워서 까슬까슬해 보이는 낡은 두루마기를 입은 그의 옷매무새는 후줄근해 보였으나 어딘가 모르게 비범함이 넘쳐 흘렀다.

젊은 진사는 형문(荆門)이 고향인 주배공(周培公)이었다.³⁷⁾

傅宏烈的对面，坐着一住二十多岁的青年举人。八字眉两边分开，清瘦的脸庞上，有着两只明亮的大眼睛，透着对什么都看得穿，又对什么都不在乎的神气。他穿着一件十分破旧的夹袍，却没有丝毫的寒酸气，更没有依附权门的奴才相，翘着二郎腿，正在出神地望着外面的雪景。这个人，名叫周培公，荆门人氏。³⁸⁾

“그는 20여세에 벌써 ‘举人’에 합격했다”는 말로 그 사람이 재능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는 이미 ‘举人’이지만 그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다.”라는 말로 그가 권문세족이 아님을 나타낸다.

伍次友은 그의 재능을 높이 사 추천서를 써주며 명주에게 의탁하길 권했으나, 그는 “대장부가 공명을 얻을 때에는 광명정대해야 합니다. 내가 어찌 명주에게

37) 二月河 著, 韩美华 译, 《강희대제4》, 산수야, 2005年版, 24쪽.

38) 二月河, 《康熙大帝·驚風密雨》, 河南文藝出版社, 1999年版, 79쪽.

허리를 굽혀야 하겠습니까?”라는 말한다. 康熙 皇帝는 변복을 하고 민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周培公을 만나 그의 강직함에 탄복하고 그가 시와 문장에 능통할 뿐 아니라 병법에도 조예가 깊다는 것을 발견하고 周培公에게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해 말하게 한다. 원문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

주배공의 말에 강희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는 주배공이 찻잔을 잡으려고 하자 목말라 그러는 줄 알고 급히 말했다.

“예,차드시고 말씀하세요.”

말할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주배공에게 폭 빠져든 강희가 뭐라고 물으려던 찰나 도해가 급히 달려들어오더니 강희의 귓가에 엮드려 귓속말을 해왔다.³⁹⁾

周培公说到兴奋之处，顺手端起桌上茶杯，一饮而尽。康熙见他渴，便又替他斟了一杯，还待再问下去，图海却匆匆进来了，附在康熙耳边，轻轻地说了几句话。⁴⁰⁾

황제는 만인지상이라 어찌 다른 사람을 위해 차를 따를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변복을 康熙 皇帝는 그가 목이 말라 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차를 한 잔 따라 주고 그를 ‘兵部主事’에 임명하는데 이런 행동은 강희 황제가 인재를 아끼는 것을 나타낸다. 康熙 皇帝는 인재를 잘 활용했을 뿐 아니라 인재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다. 옛말에 “金无足赤，人无完人。”이라는 말이 있는데 康熙 皇帝와 蘇麻拉姑가 어떻게 군자와 소인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그의 다음과 같은 원칙이 드러난다. 그는 “군자와 소인은 각기 그 쓰임이 있어 그 능력을 다하게 해야 한다. “ 이는 그가 어떻게 사람을 쓰는지에 대한 기준을 나타낸다, 그의 신하들 속에는 용과 물고기가 섞여 있다. 그 중에는 熊賜履, 魏東亭 등과 같이 충직한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明珠, 葛禮, 索額圖 등과 같은 탐욕스러운 간신들도 있었다. 康熙 皇帝는 정치국면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들 모두를 알맞게 등용했다. 예를 들어 강희 황제는 李光地가 부모에게 불효하고 친구를 배신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벌하지 않고 중용해 타이완을 정벌하게 했다.

이에 열거한 예를 통해 우리는 康熙 皇帝가 인물을 중용하는데 첫 번째 기준

39) 二月河 저, 한미화 역, 《강희대제4》, 산수야, 2005年版, 96쪽.

40) 二月河, 《康熙大帝·驚風密雨》, 河南文藝出版社, 1999年版, 146쪽.

은상의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의 인덕은 그 다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康熙皇帝는 군신들의 재능과 품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알았다. 이는 “만물은 존귀하지 않는 것이 없다”⁴¹⁾ 라는 이론에 수정과 보충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康熙皇帝가 전통 문화의 참뜻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화민족은 관대함을 미덕으로 여기는데, 이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에 대해 엄격하고 남에게 너그러워함을 나타낸다. 이월하의 작품 속에서 康熙皇帝는 단순히 도덕적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전통적인 도덕관념을 초월했다고 묘사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쓰는 일에 대해서는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③ 지략

“康熙皇帝는 황제임에 동시에 모략가였다. 그는 모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지략과수 단을 가지고 있었다.”⁴²⁾ 그는 6살 때부터 《帝王心鑒》을 공부하고, 제왕의 존엄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 “하늘과 신의 뜻에 따라야 할 뿐 아니라, 의, 예, 지, 신에 의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군신들로 하여금 그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게 했다. 알 수 없을수록 더 신비로우며, 신비할수록 더욱 진귀해지는 것이 천고 불변의 법칙이다.”⁴³⁾

螯拜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明珠와 索額圖 두 사람은 단결하여 강희 황제를 위해 일을 했다, 그러나 螯拜가 숙청된 이후에 두 사람은 서로 뜻이 달라 각자 자신과 맞는 이들을 모아 세력을 넓혀갔다. 그러나 강희 황제는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래서 高士奇를 중용해 그를 통해 明珠와 索額圖 두 사람을 견제하게 하여 상서방의 파벌싸움을 종식시켰다. 康熙皇帝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권력 투쟁을 허용했으나 군주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지 않았다.

왕자들의 권력 다툼 중에 胤祊를 태자에서 폐한 것은 왕자들의 권력 다툼 기쁨을 부은 상황이 되었다. 강희 황제는 南闈 시험에서 <放太甲于桐宮>라는 문제

41) 《老子》, 第51章

42) 戴璿, <論二月河帝王系列小說>, 蘇州大學, 2005年1月1日, 29쪽.

43) 二月河, 《康熙大帝·奪宮初政》, 河南文藝出版社, 1999年版, 66쪽.

를 통해 왕자들의 진심을 알아보려 했다. 사실 그는 이미 태자였던 胤禔에게 큰 실망을 하고 그를 복위시킬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왕자들은 강희 황제가 胤禔를 복위시키려는 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강희 황제에 대항하다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천수연 이후에 강희 황제는 중병에 들어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고 隆科多에게 밀지를 내려 그가 康熙 皇帝가 죽고 난 후에 반란을 꾀하지 못하도록 막고 옹정이 순조롭게 황위를 계승할 수 있게 하였다.

④ 인내심

康熙 皇帝는 즉위 후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伍次友를 스승으로 삼고 그에게서 군자의 도리를 배웠다. 그는 자신이 친정을 하기 위해서는 鳌拜를 제거하고 鳌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吳三桂의 마음을 얻어야 鳌拜를 제거하는데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업을 이르기 위해 康熙 皇帝는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자신의 뜻을 감추고 鳌拜에게 자신을 낮추었다. 康熙 皇帝는 蘇克薩哈의 충심을 잘 알고 있었지만 청나라의 대업을 위해 鳌拜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고 鳌拜를 축출하려는 자신의 의중을 모두에게 숨기고 기회를 엿보았다. 이 소년 황제는 자신의 지모를 이용해 정확하게 당시의 정세를 판단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鳌拜에게 자신이 대업에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충신인 蘇克薩哈를 처형했다. 청나라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젊고 똑똑한 소년 황제는 자신의 의중을 숨긴 채 정적인 鳌拜와 손을 잡고 훗날을 도모했다. 鳌拜가 康熙 皇帝에게 어명을 내리도록 하는 장면을 원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난 전명(前明)의 신종대제(神宗大帝)를 본받아 편안한 태평천자가 되고 싶소. 웬만하면 보내주도록 하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자네 선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

“자네 생각엔 누가 적격인 거 같소?”

강희가 넋지시 물었다.

“소인 짧은 소견으로는 소어투 어른이 책임자가 아닐까 하옵니다.”

오배가 미리 연습이라도 양 거침없이 대답했다.

강희는 겉으론 무지와 무관심의 극치를 드러내 보였지만 속으론 당장 짓밟아버리고 싶을 정도인 오배의 축 늘어진 볼따귀다 가증스러웠다.

.....

“실례라니! 나라의 자네 같이 문무 겸비한 장령이 있으니 난 오늘부로 잠자리 걱정을 맡끔히 해소했네. 자네만 곁에 있으면 신변도 보장되고 너무 좋은 걸.”

말을 마친 강희는 얼굴을 돌려 위동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 시간을 내서 치고 박는 데 소질 있는 열댓 살 되는 소년을 몇 명 불러와야겠네. 개네들과 같이 나도 무예연습을 좀 해야지, 몸이 뻣뻣해서 애늬은이라는 소리 들을까 두렵네.”⁴⁴⁾

“朕要学明神宗，舒舒服服地做个太平天子，不用瞧了康熙笑着摇头，一副心不在焉的样子，“比这大的事你都办好了，何用朕来操这个心。”

.....

康熙慢慢问道：“你瞧着谁去好呢？”鳌拜不假思索地答道：“臣以为索额图为宜。”

康熙表面上嘻笑着竭力保持平静，心里却恨不得一脚踢死眼前这个满面横肉的家伙。

.....

康熙将扇子一合塞进袖子，笑道：“国家有像卿这等勇武的大将，朕可以高枕无忧了。”又转身对魏东亭道：“你去找几个少年，一律都是十六七岁的，陪朕练一练功夫。”⁴⁵⁾

널리 알려진 대로 명나라 신종 황제는 40년 동안 조정에서 정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는 명나라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게으른 황제로 평가 받는다. 康熙 皇帝는 자신이 명나라 신종 황제를 본받아 그 역시 편안하게 꼭두각시 황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와 함께 조정에는 鳌拜와 같은 능력있는 대신이 있어 자신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鳌拜를 안심시키기 위한 그의 계략으로 鳌拜가 자신을 경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康熙 皇帝는 명나라 신종 황제를 본받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당대 최고의 명군이 되길 바라고 있었다. 어린 황제는 어떻게 정적을 상대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면 자신이 실력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었다. 이

44) 二月河 著, 韩미화 译, 《강희대제1》, 산수야, 2005年版, 391쪽.

45) 二月河, 《康熙大帝·奪宮初政》, 河南文藝出版社, 1999年版, 268쪽.

런 康熙 皇帝의 말에서 우리는 그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대국을 위해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정적 성격

물론 康熙 皇帝는 위에서 언급한 형상으로 인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는 단순히 작가가 만들어낸 제왕적 형상 때문만은 아니었다. 康熙 皇帝는 봉건군주로서 그가 살았던 시대를 초월할 수 없었으며, 그로 대표 되어지는 봉건계급들은 비록 정치, 경제와 문화 등에서 많은 공헌을 하고 “康乾盛世”의 기초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작가는 결코 그를 역사상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고 찬양하지는 않았다. 작가는 여러 측면에서 심도 있고 입체적으로 이 “千古一帝”의 복잡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康熙 皇帝가 비록 장막 안에서 작전 계획을 짜서 천리 밖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뛰어난 능력도 지니고 있지만, 질투가 심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 특징 까지도 작가는 놓치지 않고 묘사하고 있다.

① 시기, 교활

지략이 뛰어나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찬양의 의미로 받아 들일 수 있으나, 다른 관점에서는 교활하다고 여길 수 있게 한다. “의심이 가는 자는 쓰지 않고, 쓰는 자는 의심하지 말라”라는 옛말이 있는데, 康熙 皇帝는 경성의 병권을 吳六一에게 관할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를 의심하는 장면이 있는데, 원문에서는 다음과 묘사한다:

“이 조서가 그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황궁의 안과 밖은 전부 오욕일의 세상이 되오! 나의 목숨과 안위는 물론이고 태황태후와 자네의 목숨까지도 이 사람 손에 달려있게 되는 거요.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오!”

소마라고는 잠시 어정쩡한 자세로 있다가 그제야 뇌리를 스치는 뉘그러움을 느끼고는 다시 한번 강희의 노련함에 탄복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천만지당한 말씀이옵니다! 그런데……어떡하면 좋죠?”

“이렇게 하지.”

강희가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완냥, 이 조서는 먼저 오육일에게 주오. 그리고 내가 오육일을 감시할 수 있는 또다른 특권을 위군에게 주겠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남을 순 없으니깐 말이오. 위군에 대한 나의 믿음은 절대적이오. 위낙 충효사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고 또한 손어멈……”

그 순간 강희는 이 부분에서 말끝을 흐렸다.

소마라고는 가희의 뜻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손어멈이 태황태후의 가까이에 있는 한 최악의 경우에도 위군은 강희를 배반할 수가 없다는 계산이었다.

소마라고는 그 순간 많은 생각을 하였다. 자신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며 같이 술래잡기 놀이를 하자며 칭얼대던 꼬마 황제가, 인정 많고 명량하며 누구에게나 친절하던 소년이 어느덧 노련한 황제가 되었다.⁴⁶⁾

“这道诏旨到他手里，大内之外就全是吴六一的了。朕的身家性命，太皇太后还有你的命运全系于此人，不可不慎！”

苏麻喇姑先是一怔，恍然之间已经领悟。她不能不惊佩康熙用心之工，遂低声道：“万岁所虑的极是，只是，如何办呢？”

“这样，”康熙沉吟片刻压低嗓子，“婉娘，这道诏旨要这样给他。朕再给小魏子一道亲诏，叫他视吴六一的动静便中行事，以防变中之变。小魏子素秉忠孝，决不会有二心，况且孙阿姆，”他忽然顿住，不再往下说了。

不再往下说，苏麻喇姑也已完全明白：孙阿姆是在康熙掌握之中。这确是万无一失的了，但苏麻喇姑万万没有料到这个曾咕咕嘎嘎绕着自己捉迷藏的皇帝，这个情理通达、爽朗可亲的少年天子，猜疑之心竟如此之重，不由打了个寒噤。⁴⁷⁾

만약 康熙 皇帝가 吳六一을 믿지 못한다면 그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자란 충성스런 신하인 魏東亭에 대한 의심은 그의 질투심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魏東亭 옆에 수문장을 배치시켜 그를 감시토록 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5년 동안이나 魏東亭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고, 魏東亭의 모친 즉 자신의 유모를 곁에 머물도록 해 魏東亭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는 좋게 말해서 정치가의 수단이라 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남을 믿지 못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6) 二月河 저, 한미화 역, 《강희대제3》, 산수야, 2005年版, 116쪽.

47) 二月河, 《康熙大帝·奪宮初政》, 河南文藝出版社, 1999年版, 430쪽.

② 질투

《康熙大帝》 제3권 <玉宇呈祥>에는 黄河 치수 사업과 漕運에 관한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靳輔와 陳潢은 치수전문가로서, 그들은 평생 동안의 목표가 바로 黄河의 치수를 잘 다루어 더 이상 黄河가 범람하여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치수현장에서 십 여 년 동안 자리를 지키게 되는데, 그들의 유일한 바람은 바로 黄河의 물이 맑게 변하는 그날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治水를 위해 陳潢은 심지어 자신의 사랑도 포기하는 고통을 감내하기까지 했다. 그들의 치수 방법이 처음 성과를 보았을 때, 치수의 이념이 달라서 于成龍과 의견 충돌을 보게 된다. 양측의 싸움에서 결국 于成龍이 우위를 차지하였지만, 홍수가 범람하면서 하류 지역의 제방이 무너지고 만다. 靳輔와 陳潢의 십 여 년 간의 노력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렸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 康熙 皇帝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후 靳輔와 陳潢에게 다시 치수를 시작토록 명하게 된다. 게다가 康熙 皇帝는 여러 차례 친히 남쪽 지역을 시찰하고, 현장 조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黄河 치수사업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얻고 있었지만, 자신의 妃인 阿秀가 과거에 陳潢을 마음에 두었다는 말과 아직도 阿秀가 그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질투에 눈이 먼 康熙 皇帝는 치수사업 전문가인 陳潢을 수도로 압송하여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만다.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그는 옥에서 목숨을 잃은 뒤였다. 작가는 강희 황제의 명군으로서의 넓은 도량을 묘사함과 동시에 그가 의심이 많고 질투가 많은 소심한 모습도같이 묘사하고 있다.

3. 비교결과 - 康熙에 대한 미화

소설 속 이야기와 작가의 언어에서 우리는 작가가 康熙 皇帝를 추앙하고 찬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다른 매체의 인터뷰에서 “나의 역사관 안에는 영웅과 일반인이 동시에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영웅은 모든 제왕을 일컫는 게 아니라 업적이 뛰어났던 제왕만을 뜻한다. 내가 康熙, 雍正, 乾隆을 칭송하는 이유는 그들이 민족과 국가의 단결에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건 그 출신에 상관없이 이것과 관련된 공헌이 있다면 나는 그를 칭송

할 것이다.”⁴⁸⁾ 라고 밝혔다.

“二月河의 작품 속 康熙 皇帝는 성군으로 묘사되었는데, 여기에는 작가가 康熙 皇帝를 미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高陽은 “역사 소설의 가치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애정과 관련 있다”라고 했는데, 二月河 역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 강희 황제를 지나치게 미화한 측면이 있다.”⁴⁹⁾ 康熙 皇帝의 위대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康熙 皇帝의 업적을 부각시키고 심지어는 문자옥 사건에 대한 내용은 가볍게 묘사하는 우를 범했다. 문자옥 사건에 대해서는 강희 황제와 蘇麻拉姑이 吳六一의 은인이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내용을 가볍게 묘사하는데 그쳤다. 그 원문에는 아래와 같이 실렸다:

“사리황이 감옥에 간 게 궁금하네 .”

“비 걸갈 수 없었던 운명이었나 봐요.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에 연루되었지 뭐예요. 글쎄, 어떤 사람이 조정을 비난하는 글을 써놓고 별 반응이 없자 그 당시 한창 유명세를 타고 있던 사리황의 이름을 자신의 책 서론에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 순치황제께서 잡아 넣을 수밖에요 .”

“그런 일이었구나!”⁵⁰⁾

康熙点头道：“你且说说姓查的入狱这件事。”

苏麻喇姑笑道：“也是命里该当，有个叫庄廷琬的人，闲着没事弄来一本前明的什么《朱相国史概》的书。写序的人想着查孝廉的名气大，不言声地把他的名字也署了进去，顺治爷查究这本书时，就将他抓了起来。”⁵¹⁾

“哦！”

이 대화에는 《明史》사건의 발생한 원인을 간단히 서술하는데 그쳤으 《明史》사건의 결과와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실제로 “문자옥의 발생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희생뿐 아니라 사상과 문화에 엄청난 손실을 입혀 사회가 발전하는데 방해가 되었다.”⁵²⁾ 비록 문자옥 사건

48) 馬芳芳, 丁晨馨, <專訪二月河——我爲何歌頌康熙雍正>, 《新聞周刊》, 2003年9月15日, 第3期, 5쪽.

49) 戴瑤, <論二月河帝王系列小說>, 蘇州大學, 2005年1月1日, 15쪽.

50) 二月河 著, 韓美華 譯, 《강희대제1》, 산수야, 2005年版, 223쪽.

51) 二月河, 《康熙大帝·奪宮初政》, 河南文藝出版社, 1999年版, 387쪽.

이 康熙 皇帝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작가는 문자옥 내용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康熙 皇帝에게 훌륭한 황제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康熙 皇帝의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와 황제의 재능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 평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분명 소설 속 황제는 작가의 펜에 의해 미화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이월하가 주관적인 의도로 황제를 미화했다고는 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 가지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것은 바로 봉건황제의 개인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날지라고, 더군다나 그가 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강희제라 할지라도 멸망의 길로 들어서면 부패한 봉건사회를 막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康熙 皇帝의 성격 분석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康熙 皇帝는 성격상 의심과 질투가 많고 교활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너그럽고 관대하며, 지략이 뛰어나고 사람을 부릴 줄 아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더 강하다. 그러나 康熙 皇帝처럼 능력이 뛰어난 황제도 멸망으로 치닫는 봉건제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다. “앞을 향해 거침없이 흘러가는 역사의 물결 앞에서 그도 결국은 한낱 미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 역사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인물을 낳는다는 마르크스의 관점에 따르면 그 시대가 康熙 皇帝와 같은 황제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물이 생겨난 것이다. 다시 말해 그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역사 정신의 집행자일 뿐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었다. 모든 사물이 탄생과 성장, 盛과 衰를 거쳐 멸망에 이르는 과정을 겪듯 봉건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청조까지 이미 수천 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 온 봉건제는 탄생 초기의 생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노년의 쇠약한 기력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康乾盛世는 봉건제도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발하는 빛에 불과했다. 그것이 최후를 향한 봉건제의 발길을 붙잡아 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국 맞닥뜨릴 필연적 운명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전체 봉건사회의 대세는 이미 기울었고, 스러져가는 태양을 대신하여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다. 살아 생전 治國平天下를 이룩하고 기세 등등하던 강희제도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찾아올 비통한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것이 바로 봉건사회의 비극적 운명이었다.”⁵²⁾

52) 史革新, <文字獄危害의淺談>, 《尋根》, 2003年02期, 87쪽.

IV. 결 론

二月河는 中國 当代 문단의 傳奇作家로서, 고등학교 교육 밖에 받지 못했고, 40세 이전에는 정식으로 문학작품을 발표한 적도 없다가, 40세 이후에 다크호스 처럼 문단에 나타나 잇달아 《康熙大帝》, 《雍正皇帝》 그리고 《乾隆皇帝》 등 여러 편의 淸 황제의 역사소설을 발표하며 커다란 성공을 하게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의 작품은 국내외 중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독자층을 갖고 있으면서 수많은 상을 타기도 했다. 또한 소설을 각색해서 드라마로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다. 二月河의 성공은 많은 학자들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까지 학계에서는 二月河의 청나라 제왕시리즈 소설의 주제 평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학자들은 이월하의 청나라 제왕시리즈가 과도하게 봉건사회를 찬미하고 있다고 여기기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학자들은 이월하의 소설이 봉건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폭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봉건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본문은 《康熙大帝》속에서의 康熙 皇帝에 대한 인물형상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성격을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자는 강희 황제의 인자함과 인재를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정치가적 특징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황제이면서도 인간일 수 밖에 없는 성격의 단면마저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신적인 존재의 제왕의 모습이 아닌 일반 사람과도 같은 불완전한 성격의 제왕적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효과마저 얻고 있다. 그의 역사적 공적에서 말하자면, 작자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기초 위에 문자옥이라는 문체를 의도적으로 벗어나면서 더욱 완전한 황제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다 하겠다. 하지만 “皇帝”와 “皇權”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二月河는 봉건제에 관해서 만큼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청조는 중국 역사상 최후의 봉건왕조로, 康乾盛世는 봉건왕조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펼친 빛나는

53) 張慧敏, <百年沧桑, 一曲血色悲歌>, 广西師範大學, 2007年4月1日, 30쪽.

공연이었다. 그 후 청조는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의 길로 들어섰으며, 어둠의 심연으로 추락했다. 二月河는 분명 盛世의 걱정애 미혹되지 않고 康乾盛世가 이룩한 성취를 긍정하는 한편 그 배후에 숨은 심각한 위기를 간파했다. “落霞三部曲”의 주제를 밝히면서 그는 “나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 여기에는 봉건사회 마지막 盛世의 화려한 일면이 그려지기도 했지만, 해가 기울고 어둠이 찾아올 무렵이라는 깊고 함축적인 의미가 나타나 있기도 하다.” 라고 말했다.⁵⁴⁾ 그래서 그는 《康熙大帝》, 《雍正皇帝》, 《乾隆皇帝》 등 청 황제에 대한 3부작 역사소설을 “落霞시리즈”라고 명명했다. 그의 작품은 휘황찬란한 落霞를 묘사하고 있긴 하지만, 落霞를 바라볼 때의 비극적 분위기가 작품 곳곳에 스며 있다.

그는 일찍이 “한편으로 시와 노래에서부터 정치, 군사,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찬란한 문화를 종합적으로 그려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화의 저열함과 봉건제의 허구성을 그려내었다.”라고 말했다.⁵⁵⁾ 二月河는 이렇게 말한다.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지, 그것이 孔孟의 표식을 달고 있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본디 추한 것이 마르크스레닌 주의의 표식을 달았다고 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다.”⁵⁶⁾ 그는 작가적 시선과 심미적 태도, 이성으로써 역사의 강물 속에 깊이 가라앉은 문화라는 침적물을 발견발굴하고, 그 찬란한 역사를 전방위적으로 표현해냈다. 그는 康熙 皇帝의 개인적 능력을 긍정하고, 康乾盛世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긍정하는 한편, 이 모든 휘황찬란함이 결국 기울어가는 태양처럼 어둠 속으로 삼켜지고 마는 필연적인 귀결을 인상 깊게 그려냈다. 또한 멸망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는 봉건제의 결말과 봉건제 안에서의 세습 왕조가 처해 있는 갖가지 위기를 잘 보여주었다. 이 원칙을 무엇보다 잘 포착해낸 二月河의 작품은 객관적인 태도로써 봉건황제가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창조해낸 찰나의 번영을 충분히 긍정하고 표현하는 동시에 봉건 전통문화의 허구적이고 냉혹하고도 처참한 일면과 멸망이라는 필연적 귀결 역시 독자들에게 낱낱이 펼쳐 보이고 있다.

54) 二月河, 《二月河語》, 北京崑崙出版社, 2004年版, 7쪽.

55) 文松輝, 二月河, <文壇上没有不落的太阳>, 人民网, 2005年5月29号.

56) 二月河, 《二月河作品自选集》, 河南文藝出版社, 1999年版, 240쪽.

参考文献

1. 二月河, 《康熙大帝 奪宮初政》, 河南文藝出版社, 1999年版
2. 二月河, 《康熙大帝 驚風密雨》, 河南文藝出版社, 1999年版
3. 二月河, 《康熙大帝 玉宇呈祥》, 河南文藝出版社, 1999年版
4. 二月河, 《康熙大帝 亂起蕭牆》, 河南文藝出版社, 1999年版
5. 二月河, 《雍正皇帝 九王奪嫡》, 長江文藝出版社, 2009年版
6. 張德禮等, 《二月河歷史敘事的文化審美建構》, 人民出版社, 2005年版
7. 方婉先, 〈帝王歷史的兩種經典書寫——凌力“百年輝煌”系列與二月河“落霞”系列比較〉, 湖南師範大學, 2004年4月1日
8. 王文霞, 〈二月河歷史小說的當代價值〉, 西北師範大學, 2006年5月1日
9. 朱麗華, 〈編織歷史與消費文學〉, 山東師範大學, 2007年10月6日
10. 李弘, 〈二月河與其帝王歷史小說〉, 東北師範大學, 2006年5月1日
11. 戴璿, 〈論二月河帝王系列小說〉, 蘇州大學, 2005年5月1日
12. 孫崗, 〈二月河歷史小說論〉, 山東師範大學, 2005年10月1日
13. 于明坤, 〈盛世悲歌〉, 吉林大學, 2006年4月10日
14. 樊燕, 〈歷史在差異中復活〉, 蘇州大學, 2009年5月1日
11. 冀宇寧, 〈二月河清帝系列小說研究〉, 河北師範大學, 2010年4月8日
13. 張慧敏, 〈百年滄桑, 一曲血色悲歌〉, 廣西師範大學, 2007年4月1日
14. 姚曉梅, 〈展現在厚重歷史中的人性光華〉, 山東師範大學, 2004年4月27日
15. 凌力, 《天子——孫子——孩子——有矣〈暮鼓晨鐘〉創作的思考》, 《當代作家評論》, 1994年第01期
16. 朱水涌, 《社會鼎革與文化轉型中的歷史呼應》, 《福建論壇(文史哲版)》1999年, 第01期
17. 王增範, 《二月河清帝系列小說的缺陷》, 《中州學刊》, 2006年第06期
18. 王清春, 《二月河與其帝王歷史小說》, 山東師範大學, 2004年4月2日
19. 趙勇鋒, 《論二月河生活經歷對其創作的影響》, 《黃河科大技學學報》, 2011年第01期

20. 張德禮, 殷小紅, 《缺失體驗：二月河創作心理動因探究》, 《南都學壇》
2004年第05期
21. 許宛春, 《論二月河“落霞三部曲”의思想文化內涵》, 《河南師範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 2007年第05期
22. 劉克, 《當代清朝題材小說熱點作品的突破與局限》, 《新疆大學學報(社會
科學版) 》, 2004年12月第32卷第4期
23. 吳秀明, 《論90年代的歷史題材小說創作》, 《社會科學戰綫》, 2003年第0
4期